

정례브리핑

2021.10.8.(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짐 로저스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저녁에 진행된 ‘평화경제 토크콘서트’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어제 저녁, 남산 한옥마을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 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평화 뉴딜이란, 우리 정부의 디지털·그린·휴먼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고, 평화경제 실행의 새로운 버전이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남북경협이 평화 뉴딜로 발전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도 열릴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짐 로저스 회장은 통일부 장관의 평화 뉴딜에 대한 구상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이 된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할 것이며, 한반도에 투자하려는 회사들도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사진과 영상을 잠시 후에 별도로 기자 분들께 배포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토크콘서트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해당 언론사에서 다음 주 초에 보도가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하나원에서 주최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노력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나눠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계기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표어를 공모하고, 이 중 총 8편의 우수작품들은 많은 탈북민들에게 널리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원은 지난 12월 자살예방교육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서의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한 강사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침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리고요.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3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남북통신선 복원 일주일의 다 되어 가는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정부는 지난 10월 4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이후 오늘까지 기술적·기능적인 측면에서 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직통전화 연결, 팩스 송수신, 통신회선 운영 등 제반·기술적인 요소들이 원활하게 현재 작동 중에 있으며,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오늘 오전 개시통화, 오후 마감통화 등이 정례적으로 정시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WHO의 코로나19 의약품이 남포항에 반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 국경봉쇄 해제 또는 완화 움직임을 정부가 포착한 게 있나요?

<답변> 관련된 언론의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북중 해상통로를 통해서 일부의 물자들이 전달되고 있는 동향이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의주, 단둥의 육로의 물류 재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의 정확한 재개시점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북중 간의 후속 동향을 지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물품이 최근 북한에 반입된 사례가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난 7월부터 민간 차원의 인도협력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민간 측의 지속적인 요청과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영양물품의 시급성, 북중 물류 재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동향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도협력 물자에 대한 반출 승인을 재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범위는 민간단체의 입장을 존중하여 단체 측이 동의를 하고 단체들이 인도협력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공개범위를 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입 여부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준비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